

“노동력 부족 발농사...공동경영체 육성해야”

농촌경제연구원 시장 개방 대안 대부분 영세고령농 유희지 많아 소형 농기구 개발 등도 서둘러야

발농업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경영체 차원’에서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창길)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등이 6일 발표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발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를 결과에 따르면 발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재배품목이 다양하고 소득이 높아 재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경지면적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9.2%에서 2015년 45.9%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한·중FTA 발효 등 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밭농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발농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력 공급체계를 개발 농가 차원이 아니라 조직경영체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적인 인력시장 형성을 위해 지자체, 전문기관, 지역의 조직경영체가 공동으로 지역의 밭작물 품목별, 월별 노동력 수요 자료를 생산하여 체계적인 노동력 확보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농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의 확대와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기계화 촉진, 작부 전환 등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별 밭 농업 현황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평균
영농종사자(가구당·명)	2.5	2.3	2.1	1.9	1.9	2.0
경영주 연령	45.8	55.5	64.9	74.6	82.7	70.0
재배면적(ha)	3.1	2.5	1.5	1	0.6	1.3
밭 비율(%)	77.8	81.9	81.5	81.8	88.1	82.6
농업소득(백만원)	14.7	21.9	14.7	7.7	3.4	11.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5년 기준)

농기계 이용의 촉진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작업반 등 조직단위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고 연중 활용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농업인 의견 조사 결과,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영세고령농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소형 농기구의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시설의 안정적 이용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밭작물은 밭에서 생산되는 유형뿐만 아니라, 논에서 생산되는 밭작물 유형, 시설원에 집단화 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정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관개체계의 도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무엇보다도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생산 단계에서 해지, 농기계, 노동력 등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를 논농업에서 밭농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밭작물의 주산지 중심으로 밭

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품목별, 주산지별 특성에 따른 조직화 방안 모색도 제안했다.

이 밖에 농업경영체 조직화의 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가공·유통 분야에서의 조직적 역할을 제고시키고 이를 토대로 기반 정비, 농기계 공동이용 등 생산단계의 조직적 성과 제고로 전환하는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발농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지역별, 품목별 다양성이라고 지적하고, 밭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시·군 단위 농발계획, 원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중장기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아·태 지역 대형주 기업 최고상

한국전력이 6일 “지난 5일(현지시간) ‘아시아-오세아니아 인덱스 어워드(Asia-Oceania Index Award)’ 대형주 부문 최고상인 ‘플래티넘’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인덱스 어워드는 미국 에디슨전기협회(EEI)가 주관하며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형 유틸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평가 기준은 최근 3년간 경영성과, 주가, 배당수익률 등이다. 한전은 2014년

에는 대형주 부문 은상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세계 전력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AA 등급을 받은 가운데 다시 한 번 세계적인 회사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2012년 조환익 사장 취임 후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5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났고 2012년말 133.2%에 달하던 부채비율도 지난해말 89.9%로 줄었다.

/최재호기자 lion@

중동·브라질 콘텐츠 시장 어떻게 뚫을까

콘텐츠진흥원 자료집 발간

한한령 위기 극복 방안으로 신흥시장 진출이 수출 다변화 전략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동, 브라질 등 콘텐츠 신흥시장 진출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룬 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콘텐츠 분야의 신흥시장 진출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중동 콘텐츠시장 진출 가이드북’과 ‘브라질 주요 콘텐츠

기업정보 디렉토리북’ 등 자료집 2종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동 콘텐츠시장 진출 가이드북”은 신흥시장으로서의 높은 잠재적 가치에 비해 진출정보가 부족했던 중동 지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았다.

“브라질 주요 콘텐츠 기업정보 디렉토리북”은 방송,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라이선스, 영화, 출판 등 7개 콘텐츠 분야의 총 76개 브라질 기업정보를 다뤘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한전KPS ‘내시경 원전 정비 로봇’ 금상

제네바 발명품 전시회

한전KPS(사장 정의현)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Palexpo)에서 열린 ‘2017 제네바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 2점의 발명품을 출품해 금상 및 특별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제네바 국제 발명품 전시회는 5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발명품대전 중 하나다.

이중 한전KPS는 자체 개발한 ‘연성회로 박마형 내시경 장치’와 ‘음향공진검사 시스템’을 출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심사 결과, ‘연성회로 박마형 내시경 장

치’는 금상과 말레이시아 과학자 협회 특별상을, 그리고 ‘음향공진검사시스템’은 은상과 태국 국가연구위원회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전KPS가 개발한 ‘연성회로 박마형 내시경 장치’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관판 및 분배판의 슬러지와 이물질을 검사하고 제거하는 로봇 시스템으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비이다.

또 ‘음향공진검사시스템’은 초음파 공진을 이용해 보일러 위터럴 튜브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검사기간 대비 70%를 단축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정보 분산 기술의 미래’ 인터넷진흥원 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KISA)은 6일 블록체인의 생태계 조성 및 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블록체인 오픈 포럼’과 ‘제1회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적용돼 있으며, 개인정보와 기록 등을 분산시켜 위조와 해킹을 막는 기술을 말한다.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확산 지원계획’, 블록체인 기술의 전방위 산업계 확산을 위한 이슈 발굴, 실수요 중심 정책과제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SK C&C 오세현 전무의 ‘블록

체인 오픈포럼 운영계획’ 발표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산업활성화 전략’에 대한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KISA는 컨퍼런스 사전행사인 블록체인업계 간담회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인력 부족, 법제도 규정 정비 등 산업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백기승 원장은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설한 전담TF를 통해 기술 표준화, 법제도 정비, 산업인력 양성 등 중장기 전략수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SA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블록체인확산지원센터’를 내년 중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도심 꽃시장 주변 꽃으로 꾸몄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시장 여인홍) 화훼사업센터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전 직원이 함께 양재동 꽃시장 일대 나무심기와 주변 청소 등 환경 개선을 했다.

직원들은 조경부지에 잔디를 심고, 꽃시장 내 곳곳에 사철나무, 황금조팝나무, 주목 등을 심었다. 또한 분관 현관 앞에는 색색의 봄꽃을 식재하였으며, 아울러 주변 고사목의 제거 등 대청소를 했다.

aT 화훼사업센터는 매년 식목일을 기

념하여 녹색경관 조성을 위해 나무와 조화류 식재 등 전 국민 나무심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방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aT 조해영 유통이사는 “꽃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잘 자란 꽃과 나무를 보며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녹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